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 사이의 갈등

정형아*

- I. 머리말
- II. 陳儀의 사람들
- III.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과 대만본토의 계파들
- IV. 진의와 각 권력집단들의 갈등
- V. 맺음말

국문요약

필자는 전후초기 대만의 혼란을 대만 2·28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보았고, 이 혼란의 배경에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온 국민당 여러 계파의 이익과 지위다툼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대만통치가 종식되면서 국민당 정부가 파견한 관원들에게로 새롭게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대만 2·28사건을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등, 즉 대륙에서 온 사람들과 대만 본토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진의가 대만의 행정과 군사의 수장으로 파견되고 그와 함께 대만을 접수한 관원들은 일본식민당국이 물리간 자리를 대신한 최고의 권력층이 되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대만접수를 위해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국민당의 여러 계파도 대만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은 진의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권력다툼을 벌였다. 여기에 대만 본토세력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지위와 권익을 위해 국민당계파와 연합하여 진의정부를 공격하는 무리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들이 있었다. 대만학자 진명통은 이 셋을 각각 대등한 위치에서 권력다툼을 벌이던 과별이라고 분석한 반면, 본 논문은 이 셋의 성격을 재검토하여, 크게 진의의 사람들과 대륙에서 온 사람들로 구분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이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이원화된 가운데 대만본토세력이나 진의 정부의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륙에서 온 세력에 협조하거나 지원을 받으며 진의와 대립하는 양상을 띤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국민당 내부에 권력다툼의 양상에 대해 실망하였고 오히려 일본 식민통치자들의 자리를 이어받은 동포라고 생각했던 국민당정부에게 깊이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주제어 : 대만, 권력충돌, 전후시대, 국민당계파, 진의.

I. 머리말

대만의 2·28사건은 우리나라의 5·18광주민중항쟁이나 제주의 4·3사건과 자주 비교되는 대만의 민중항쟁으로, 1947년에 발생하였다. 이 때는 광복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로, 이 사건의 발단은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배경에 내재한 여러 원인들을 고찰해 본다면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사건 후 권력주체자(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는 냉전이라는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 좌우이념 대립으로 단순화하였고, 사건의 강경진압을 공비 토벌로 해석해 버렸다. 또한 그 이후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수도, 재고될 수도 없었던 상황은 이 사건으로 하여금 왜곡된 채로 역사 속에 남아 있게 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대만의 민주화 바람에 편승하여 2·28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배상 뿐 아니라 학술적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학계 뿐 아니라 일반 민중의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크고 작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배경에 대한 연구 성과를 놓고 본다면, 현재까지의 연구가 단순히 좌우의 이념대립적인 상황이었다는 사건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부정하는 데에 치중하다보니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전후 대만 사회에 존

재했던 사회적 모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2·28사건에 대한 연구 중, 그 배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공산당선동설을 부정하고 있다.¹⁾ 그리고 공산당 선동설을 부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28사건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전후 초기 대만의 정치, 사회, 경제를 연구하여 정치의 부패와 파벌투쟁, 경제적 위기, 섬 문화와 대륙 문화의 충돌, 대만 민중의 심리적 불안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²⁾

필자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2·28사건의 배경을 주목하였는데 그 중에서 전후초기 대만의 혼란에 관심을 두었고, 그 혼란의 배경으로 권

-
- 1)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裴可權(『台共叛亂及覆亡經過紀實』, 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87), 陳儀深(『論台灣二二八事件的原因』, 陳琰玉主編의 『二二八事件學術研討會論文集』(1991)), 詹彩鳳(『共產份子與二二八事件』, 陳利甫編, 『禁忌·原罪·悲劇: 新生代看二二八事件』, 台北: 稻鄉出版社, 1990) 등이 있다.
 - 2) 張旭成(『二二八事件的政治背景及其影響』, 陳芳明 編, 『二二八事件學術論文集』(1991), 台北: 前衛出版社, 1989)은 대만 행정장관공서의 진형, 전매와 약탈, 횡령과 부패, 무능한 정책 등을 지적하였고, 姚禮明(『1949年以前的台灣海峽兩岸關係研究』, 『北京大學學報』1999年 第3期)은 陳儀와 대만행정장관공서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대만출신의 인사와 외성출신의 인사를 불평등하게 함으로써 대만인의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陳婉瀟(『陳儀治台與台灣“二二八”起義』, 『學海』1992年 第6期)는 경제적 원인을 지적하며 대만 화폐가치의 동요, 광공(鑛工)기업의 진흥부진으로 인한 실업지수 급증, 관공서의 기업체에 대한 뇌물수수, 곡물의 외부유출과 밀수로 인한 식량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李筱峰(『二二八事件前的文化衝突』, 『思與言』第29卷 第4期, 1991年12月)는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건은 체질이 중국사회와 다른 대만이 조국에 돌아간 후에 발생한 사회문화의 충돌과 마찰 때문이라고 하였고, 許雪姬(『台灣光復初期的民變: 以嘉義三二事件為例』, 賴澤涵主編, 『台灣光復初期歷史』, 台北: 中央研究院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93)도 같은 맥락에서 대만과 중국대륙의 단절이 너무 오래 되고 쌍방 간의 의식차이가 매우 컸는데, 행정당국은 이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도 정신의학전문가인 林宗義는 『二二八學術研討會』(1991)의 폐회사에서 대륙사람들은 대만인을 그들보다 낮은 등급으로 보았고, 대만인은 스스로 일제통치를 거치면서 대륙사람들보다 더 잘 지내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심리상태를 가진 것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켰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고찰은 2·28사건이 현재 대만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력주체의 갈등을 주목하였다. 즉 일본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새로이 통치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력 주체자들을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만에서는 일본 식민당국자가 떠나간 후 권력을 이양받은 새로운 통치 집단이 지배력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강압적인 통치행태가 나타나 통치 집단과 토착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갔다. 대만 총독부가 물려간 자리를 대신한 통치 집단은 국민정부와 그들이 파견한 진의를 대표로 하는 대만 행정장관공서였다. 중국 국민정부가 카이로회담으로 전후 대만 수복을 확인한 이후, 국민정부는 대만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만 점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훈련된 간부들이 대만의 새로운 행정방면의 주체자들이 되었다. 필자가 주목한 연구의 시작점은 종전 후 식민통치자가 대만을 떠난 이후에 나타난 대만 사회의 혼란기가 아닌 그 이전 국민정부가 대만 점수를 준비하면서부터이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대만조사위원회는 대만점수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여 왔고, 또 국민정부를 대표하여 대만의 통치자가 된 陳儀는 거의 독점적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세력이 물러난 이후 대만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심각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시 대만총독부에게서 대만을 점수하기 위해 대륙으로부터 온 사람들 중에는 대만조사위원회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행정가들 뿐 아니라, 기존의 국민당 내부의 각 계파들도 黨務, 정치, 경제, 군대 등 각 방면의 점수에 간여하기 위하여 대만으로 들어와 새로운 권력 주체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과 협력하면서 권력계층의 일부로 정착하고자 하는 대만 출신자들, 또는 일본통치시기부터 유지해 오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원했던 대만인들이 이 시기의 권력 주체자들이었다. 이들의 구성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는데 필자는 이들 권력 주체자들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이들과 진의의 관계를 통하여 당시 대만사회가 가진 모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陳明通은 파벌투쟁의 각도에서 2·28사건의 배경을 고찰한 거의 유일한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민당중앙·행정장관공서 및 본토 사회라는 3개 파벌의 부패과 삼각구도의 대립과 투쟁으로 진의가 전후 부흥공작을 수행할 수 없었고, 이것이 2·28사변을 일으킨 주요원인을 야기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³⁾ 필자의 관점도 이들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다만 陳明通의 구분처럼 국민당 중앙과 진의의 행정장관공서, 그리고 대만본토출신자라는 대립적인 삼각구도라는 것이 독립적 개체로서 완벽하게 분리 구분할 수 있었을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엄밀히 말하면 진의도 국민당 중앙 소속이었고, 대만 본토출신의 세력은 국민당 중앙의 계파나 진의 정부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세력 기반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이 세 가지 세력이 대등하게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정치여건이 대만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전후 초기 대만사회의 공식적인 권력중심은 진의의 정부라고 보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고찰대상을 크게 진의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진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시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과 대만본토 출신의 권력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륙에서 온 집단은 모두 국민당과 중국 대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孔宋집단을 제외한 CC파와 군통, 삼민주의 청년단은 당무와 군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 활동에 집중했다는 면에서 성격과 활동이 대동소이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은 각각 장개석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는 陳明通의 표현처럼 국민당 중앙이라는 표현도 전혀 손색이 없다.⁴⁾ 또한 본문 2장에서 살펴보게 될 陳儀의 집단에 대해 보자면 陳儀도 정확히 출신이며 국민당 중앙에서 임명하여 대만에 파견되었다는 점에서는 국민당 중앙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권력의 갈등 구도에서 이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추구한 권력과 이익의 선점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이들 양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대만의 발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대만에 대해서 陳儀는 국민당 내의 다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대만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분석활동을 거치면서 대만 재건에 대한 기대와 이상이 있었다. 그가 굳이 행정 장관공서제도라고 하는 대륙의 각

3)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臺論」, 賴澤涵主編, 『臺灣光復初期歷史』, (臺北: 中央研究院中山人文科學研究所, 1993).

4) 위의 글, 252쪽.

성과는 다른 제도를 고집했던 것도 물가와 통화의 심각한 상황에 있던 대륙과는 차별화시켜 독립적인 화폐와 은행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⁵⁾ 재정금융 외에도 경제, 생산, 교통운수, 교육, 치안 등 민생을 우선 고려해서 이미 일본 식민통치시기부터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어온 대만에서 민생의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이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비해서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은 대만에서 국민당이 안정적으로 세력을 뿌리내리는 것을 바라기도 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정치적 위치와 경제적 이익을 다른 집단보다 우위에 두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직접 통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陳儀의 행정장관공서가 가졌던 대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 대한 기대는 분명 대륙에서 온 다른 권력집단보다는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들을 국민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아닌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이라는 단어로 구분 짓고 陳儀정부와 그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이에 위치한 대만 본토 출신자들은 물론 대만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치적 위치 확보가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진의와 대립했다는 측면에서 대륙에서 온 집단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陳儀의 사람들

우선 살펴볼 세력을 필자는 진의의 사람들이라고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진의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당 중앙의 한 계파인 신정학계와 전쟁 시기 대만수복을 위한 준비기구로 조직된 대만조사위원회, 그리고 전후 대만에서의 실제 접수와 관리를 담당한 대만행정장관공서가 있다. 이들은 진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진의와 다른 계파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5) 全國政協文史資料研究委員會 等編, 『陳儀生平及被害內幕』,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87), 96쪽.

1. 陳儀와 新政學系

陳儀는 절강 소흥출신이다. 그는 1907년 일본 사관학교 포병과를 졸업한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무창봉기 후에 軍務部部長 겸 陸軍小學校長에 임명되었다. 1914년 북경으로 가서 政事堂統率辦事處參議를 지냈고, 1916년 袁世凱가 체제운동을 벌이자 사직하고 다시 일본으로가 육군대학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귀국하였으나 국내 상황이 혼란하여 정치에 종사하지 않고 친구와 합작하여 江北裕華墾植公司를 운영하였다.⁶⁾

1923년 江蘇군벌 齊燮元和 절강군벌 盧永祥이 江浙전쟁을 일으켰을 때, 福建의 孫傳芳이 齊燮元을 지지하여 절강으로 들어갔다. 당시 절강 지역의 지주 신사들은 孫傳芳군을 환영했고, 陳儀도 그중의 하나였으며, 孫傳芳을 지지한 陳儀는 절강 第一師師長이 되었다. 1926년 북벌군이 江西로 진격했을 때, 진의는 자신의 참모장 葛敬恩을 파견하여 장개석을 만나게 하였고, 葛敬恩은 陳儀를 第十九路軍 군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과 장개석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⁷⁾ 이렇게 장개석과 인연을 맺게 된 陳儀는 1927년 7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1928년 3월에는 국민정부의 유럽각국의 兵工廠 상황을 알아보라는 명을 받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시찰하였다.⁸⁾ 이 때, 독일 유학중인 張果爲, 陳東生등을 만나게 되었는데,⁹⁾ 張果爲는 후에 陳儀가 복건성을 주관할 때, 복건성의 財政과 地政방면의 중임을 맡리게 된다. 귀국 후, 1929년 4월 陳儀는 軍政部 兵工署署長에 임명되었고, 그 다음 달에는 軍政部 常務次長이 되었으며, 1934년에는 복건성 주석으로 임명되었다.

정학계는 1916년 袁世凱가 죽고 북경에 段祺瑞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회가 다시 회복되자 張耀曾, 李根源, 楊永泰 등이 政團을 조직하여 ‘政學會’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정학회는 정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6) 錢履周, 「我所知道的陳儀」, 戴國輝, 「愛憎二二八」, (臺北: 遠流出版社, 1992), 2쪽.

7) 全國政協文史資料研究委員會 等編, 「陳儀生平及被害內幕」, 7-8쪽.

8) 위의 책, 20쪽.

9) 錢履周, 「我所知道的陳儀」, 4쪽.

표방하였다.¹⁰⁾ 그들은 정학계는 우익적 성향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민당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정계에서 활동하면서도 줄곧 정학계라고 불렸다.¹¹⁾ 1918년 段祺瑞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安福國會를 성립시켰을 때, 정학계의 구성원의 상당수는 북경을 떠나 남방정부로 가서 정치활동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1927년 국민정부의 북벌시기에 국민당내에서 군권은 장악하였으나 행정적 인재기반이 부족했던 장개석이 행정부문을 장악한 汪精衛와 겨루기 위해 정학계 출신의 張群을 등용하면서 정학계는 중앙정계에서의 활동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장개석이 馮玉祥, 閻錫山, 桂系, 동북군 등의 군벌세력을 약화시키고 공산당 토벌시키는데 참여함으로써 정학계는 국민정부 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張群은 북벌군사령부 總參議를 지냈고 楊永泰도 국민정부의 군사위원회의 참모장, 豫鄂院 剿匪總司令部비서장등의 요직을 거쳤다. 특히 공산당토벌이 계속되는 동안 장개석의 신임을 얻은 楊永泰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력그룹을 형성하였는데, 張群 뿐 아니라 熊式輝, 吳鐵城, 翁文灝, 陳儀, 王寵惠, 王世杰 등이 참여하였고, 陳儀도 그 당시 軍政部 정무차장을 지냈다. 이 때 구성된 그룹을 新정학계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국민당 내에서 하나의 계파로 성장하며 행정권을 통제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이 湖南, 河南, 湖北, 安徽 등 지역에서 당무대권을 장악해 나가자 CC파의 불만이 고조되어 CC파의 수장인 陳果夫는 정학계의 해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36년 湖北省 省長으로 있던 楊永泰가 암살을 당한 후 신정학계의 활동은 침체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陳儀가 대만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陳儀를 지지했던 국민당 중앙설계국의 국장은 같은 신정학계 소속인 雄式輝이었다. 그들은 대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신정학계가 대만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결의한 바 있으며,¹²⁾ 또한 1947년 국민정부가 개조할 때, 張群, 翁文灝, 王寵惠, 王世杰 등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정학계가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10) 趙英蘭, 「論南京國民政府時期的新政學系」, 『史學集刊』 1995年 第3期, 32쪽.

11) 趙英蘭, 앞의 글, 32쪽.

12) 唐德剛, 「政學系探源」, 『傳記文學』 第63卷 第6期(1993年12月), 28-29쪽.

2. 대만조사위원회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전한 청의 요청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李鴻章은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에서 청은 일본에 遼東반도, 대만, 澎湖를 할양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부터 대만은 일본 식민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37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대만은 이미 42년간 중국의 통치역량이 미치지 않는 땅이 되어 있었지만, 중국 국민정부의 수반인 蔣介石은 대만의 수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38년 4월 1일 개최된 임시전국대표대회 제4차 대회에서 장개석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이며, 고려와 대만을 일본 제국주의자의 손에 두어서는 안 되며, 고려와 대만의 인민해방을 직무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¹³⁾ 사실 영토의 주권을 중시하는 중국인민들은 전후 대만의 수복을 아주 당연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타임지가 『태평양 관계』라는 표제의 소책자를 발행하여 전후 대만의 “국제 공동관리”를 상정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42년 11월 3일, 중국 외교부장 宋子文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침범한 영토인 중국의 東北과 대만, 오키나와는 마땅히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뿐만 아니라 1942년 11월 13일 국민정부의 군사신문인 『掃蕩報』 또한 입법원장 孫科의 글을 통해 전후 대만의 국제 공동관리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였다.¹⁵⁾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는 대만에 대한 전후 처리는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고, 중국을 동아시아에서의 盟友로 결정한 미국은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카이로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장개석에게 대만의 반환을 약속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은 전후 중국이 동북지역과 대만, 팽호열도를 수복할 것이라고 천명하였고, 이에 장개석은 대만 수복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만들

13) 張瑞成, 『抗戰時期收復臺灣之重要言論』(臺北: 近代中國出版社, 1990), 1쪽.

14) 陳志奇, 『中華民國外交史料匯編』(十一)(臺北: 渤海堂文化事業有限公司, 1996), 5475쪽.

15) 『掃蕩報』(聯合版) 1942년 11월 13일.

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부터 熊式輝가 비서장으로 있는 중국 국민당 중앙설계국은 대만 수복 준비계획에 착수하였고, 1944년 4월 17일 대만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당시 국민당 중앙 黨政工作委員會 考核委員會의 비서장 겸 중앙훈련단 교육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陳儀가 대만조사위원회의 주임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¹⁶⁾, 陳儀는 국민당 내에서도 ‘臺灣通’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1935년 陳儀가 福建省 주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만 총독부가 일제 통치 4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 때 陳儀는 대만의 근대화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크게 경악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사람을 파견하여 대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게 한 후, 시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정부 내에서 대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이다. 국민당 내에서 대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인물로 陳儀가 손꼽혔던 만큼 陳儀도 대만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전후 대만의 거취가 결정되기 전부터 陳儀는 熊式輝와 자주 대만 수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개석은 대만출신자 혹은 대만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양성하여 대만이 수복되면 곧장 黨政기구와 관련책임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의 명령에 따라 발족된 대만조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中央設計局臺灣調查委員會組織規程』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① 대만에 관한 자료 수집, 대만의 실제상황 조사, ② 대만 문제에 관한 자료 편집, ③ 대만 문제에 관한 의견과 방안을 연구, ④ 대만을 수복하고 처리할 각 부문의 인재 훈련, ⑤ 미래 대만 행정체제와 각종기구 접수 방안을 계획 등이었다.¹⁷⁾ 대만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주임위원인 陳儀 외에 沈仲九, 王芑生, 錢宗起, 周一鶚, 夏濤生이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대만조사위원회가 존재하는 동안 많은 수의 겸임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예를 들면, 謝南光, 黃朝琴, 游彌堅, 林忠受, 宋斐如, 林忠, 連震東, 李萬居, 劉啓光, 謝擘强 등이었는데¹⁸⁾ 이들 중에는 대만출신인 사람들이 다수 참

16) 孫彩霞, 「陳儀與臺灣(上)」, 『海峽評論』 74期(1997年2月), 1쪽.

17) 『中央設計局臺灣調查委員會組織規程』(1944년4월); 中國第二歷史檔案館, 「抗戰勝利前國民黨政府接受臺灣準備工作檔案史料選」, 『民國檔案』(1989年第3期)에서 재인용.

18) 陳鳴鐘, 陳興唐, 『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상)』(南京: 南京出版社, 1989), 3쪽.

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적 자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륙 내지인 중에서도 초빙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대만조사위원회는 1944년 4월 17일부터 1945년 10월 말까지 陳儀의 지휘아래 활동하면서 일본통치하의 대만의 행정제도, 호구조사, 사회사업, 경찰제도, 전매사업, 교육, 교통, 무역, 위생, 금융 등 여러 방면에 대해 조사 분석, 번역, 편집을 하여 많은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그들이 분류하고 분석한 식민통치하의 대만 행정제도에 관한 자료가 13종, 법령자료가 5종이 있었고, 오키나와와 대만의 지도도 작성하였으며, 또한 『臺灣地方行政制度法規』, 『臺灣財政法令選集』, 『日本統治下の臺灣行政制度』, 『日本統治下の臺灣教育』 등 대량의 자료와 책도 번역되었다. 그 후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臺灣接官計劃綱要』를 출간하여 대만의 地政, 金融, 經政, 教育 분야에 대한 접수관리계획의 기초로 삼았다. 그 중 『臺灣接官計劃綱要』는 수정과 토론을 거친 후에 장개석에게 보고되어 수정을 거친 후 1945년 3월 23일에 발표되었다.¹⁹⁾ 그러나 이들 자료는 아직 일본이 투항하기 이전에 수집한 자료들로, 대체로 책과 잡지 등 문서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현지조사를 통한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나 당시 국민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실이었다.

대만조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하는 대만 수복의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은 실무종사자의 양성이었다. 대만을 통치하던 일본 관원과 주요 직무를 담당하던 일본인이 본국으로 귀환한 자리를 중국이 즉시 접수하여 대만의 각 부문의 주요업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런 필요에서 단지 대만을 조사할 전문가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자의 준비작업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陳儀는 일찍이 陳立夫에게 보낸 서신에서 인력배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대만 수복 후 제일 어려운 문제점은 인재수급의 문제로 대만의 각 기관 고급 인력은 거의 대부분 적(일본)인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수복 후 중국인이 즉시로 인수하여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많은 인

19) 陳鳴鐘, 陳興唐, 앞의 책, 3-4쪽.

력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²⁰⁾ 이처럼 대만접수 후 행정의 공백을 없도록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陳儀는 인력배양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만조사위원회는 인력 배양 작업에도 착수하였다.

당시 陳儀가 중앙훈련교육부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훈련단에서 黨政幹部訓練班을 개설하였고, 각 훈련반의 모든 행정은 모두 중앙훈련단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12월 25일 제1기 대만 행정간부훈련반이 개설되었고 陳儀는 친히 훈련반의 주임을 담당하였으며 120명의 수강생이 선발되었다. 수강생의 출신지역별로 구분을 하면 복건성 출신이 31명으로 제일 많았고 江蘇와 廣東출신이 23명과 2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만출신자는 6명뿐이었다.²¹⁾ 이 훈련반의 수강생은 중앙 각 기관 혹은 부속기관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 중 선발하여 보낸 것으로, 연령은 25세에서 45세 사이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는데, 1.고등고시합격자, 2.荐任이라고 하는 3등 문관의 직무를 역임한 적이 있어야 하며, 3. 전문학교 이상의 상급학교 졸업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4. 반드시 업무 성적이 우수한 자라야 했다. 수강생은 민정, 재정금융, 공상교통, 농림수산과 목축, 교육, 사법의 6개 조로 나누어 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기간은 4개월이었기 때문에 제1기는 다음해 4월 20일에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외에도 대만경찰간부강습반과 경찰고급간부훈련반도 각각 개설하여 대만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이 두 훈련반은 훈련을 통해 각급 경무원원 932명을 배출하였다.²²⁾ 또한 四聯總處²³⁾는 국내외의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 40명을 모집하여 「臺灣銀行人員調訓班」을 개설하고 대만 금융방면의 접수간부가 되도록 하였다.²⁴⁾

20) 『陳儀致陳立夫函』(1944年5月15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抗戰勝利前國民黨政府接受臺灣準備工作檔案史料選」에서 재인용.

21) 賴澤涵, 朱德蘭, 『歷史視野中的兩岸關係(1895-1945)』(臺北:海峽學術出版社, 2005), 219쪽.

22) 陳鳴鐘, 陳興唐, 『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상)』, 7-8쪽.

23)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농민은행 연합회를 지칭.

24) 陳鳴鐘, 陳興唐, 『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상)』, 8쪽.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장차 대만을 접수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상식적으로 대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은 대만출신자라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훈련반 수강생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위에 나열한 조건이나 상황에 의거하여 선발되었기 때문에 대만출신자가 극소수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 훈련반 출신자들은 대다수가 내지인 출신자들로 비록 4개월 정도의 훈련과정을 거쳤지만, 훈련자가 대만출신이든 내지인이든 간에 당시 일본통치하에서 살아온 대만인들의 상황과 정서, 또한 해방과 더불어 중국에 귀속되면서 겪게 될 복잡한 심리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접수공작에 참여하였고, 또한 대만의 식민당국의 통치지위를 이어받은 陳儀의 행정장관공서 내에서 주요 직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전후 초기 대만의 권력주체자 내부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세력이 되었다.

3. 대만 행정장관공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였고, 8월 28일 국민정부는 陳儀를 대만성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또한 그에게 대만성 경비총사령관의 직위도 겸임하도록 하였다. 8월 30일에는 접수를 위해 葛敬恩을 먼저 파견하여 대만성 행정장관공서와 경비총사령부의 前進指揮所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9월 1일에 陳儀와 대만성 행정장관공서는 우선 重慶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²⁵⁾ 陳儀는 10월 24일 臺北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대만 인민들은 陳儀와 국민정부가 파견한 관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10월 25일 陳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대만과 팽호열도는 중국의 영토로 다시 편입되었다. 모든 일체의 토지, 인민, 政事는 모두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주권 하에 있다”고 선포하였다.²⁶⁾ 이 때부터 50년간 일본 총독부가 차지하고 있던 대만의 통치 지위는 중국 국민정

25) 『國民政府公報』, 渝字第八四六號(1945年 9월 1日).

26) 『臺灣省行政長官兼警備總司令陳儀正式宣布臺灣日軍投降廣播詞』, 秦孝儀, 張瑞成主編, 『光復臺灣之籌劃與受降接受』(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會, 1990), 201쪽.

부에게 넘어갔으며 陳儀는 국민정부를 대표하여 대만을 치리하는 최고 수장이 되었다.

대만수복 후 대만의 행정체제는 다른 대륙의 省들과는 다르게 제정되었다. 대륙의 省들은 省政府을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무는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위원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省政府의 주석도 위원회 위원 중의 한사람으로, 다른 위원들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지는 않았으며, 위원들은 省政府의 각부처장을 겸임하기는 하였는데, 그 지위적인 측면에서 省政府 주석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대만은 대륙의 省들과는 다른 체제인 행정장관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장기적인 통치와 경영을 받은 대만을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특수한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陳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정부가 발표한 「臺灣行政長官公署 組織條例」에 따르면 장관공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법령에 의거하여 대만성 전체의 행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②그 직권범위 내에서 각 서의 명령을 반포하되 대만성이 단독으로 제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③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을 처리해야 한다. ④대만성 중앙의 각 기관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²⁷⁾

이에 근거하여 행정장관에게는 다른 省政府 주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위의 ①의 내용은 행정장관 1인이 행정대권을 독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臺灣省長官公署 政務會議 暫行判法」에 근거하여 형식상 정무회의가 존재하고 행정장관과 장관공서는 비서장, 각부처장, 각위원회의의 주임위원, 대만성 경비총사령 참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무회의의 의제범위는 행정장관이 제출하고 회의 출석자들이 세부적인 의제를 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 그러나 실제로 정무회의는 결정권이 없이 행정장관의 결책을 자문하는 정도였고, 행정장관공서 내의 각 부처장은 대체로 행정장관 陳儀의 막료들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행정장관과는 상하예속관계에 있었

27) 臺灣省行政長官公署秘書處編輯室編, 『臺灣省行政各機關組織規則』(1946年 4月).

28) 臺灣省行政長官公署秘書處編輯室編, 『臺灣省行政長官公署公報』, 第一卷 第一期(1945年 12月).

다. 이 뿐 아니라 행정장관은 대만 현지 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제도와 규칙을 반포 실행할 수 있었고, 대륙의 전국각지에서 적용되는 민국의 법령에 대해서도 장관이 독자적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었다. 이 때 만들어진 『臺灣省充實地方自治辦法』, 『人民團體組織辦法』, 『專賣品販賣辦法』, 『日產處理辦法』 등의 법규는 대만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규들이다. 陳儀는 사법, 고시, 감찰, 중앙은행, 세관, 육해공군 등 중앙정부가 만든 대만의 지부기관에 대해서도 모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²⁹⁾ 이러한 면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의 행정장관은 대륙의 다른 성 주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주성과 독점적 권한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한 속에 陳儀는 임기 반 년 만에 機要, 人事 두 개의 室, 秘書, 民政, 教育, 財政, 工礦, 農林, 交通, 警務, 會計의 아홉 개 部處와, 法制, 宣傳, 設計考核, 土地, 적산처리, 일본교포관리, 學產관리, 경제, 물가의 아홉 개 위원회, 전매, 무역, 식량, 기상의 네 개 局, 농업, 수산, 糖業, 공업, 해양의 5개 실험소, 그 밖에 박물관, 경제원, 省은행 등 많은 기관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다. 1946년의 통계에 따르면 행정장관 공서 산하에 만들어진 기관은 183개, 직원은 1만8736명에 달했는데,³⁰⁾ 당시 대륙의 어떠한 성정부도 이와 같은 방대한 조직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과 인력이 陳儀 1인의 독점적 지휘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면 비록 그 조직이 방대하기는 하나 상당히 효율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더불어 陳儀 막료들은 오래동안 진의와 함께 해 온 사람들로 대만에서 그들의 세력도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陳儀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전후 陳儀가 대만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측근들을 출신배경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일부는 陳儀가 복건성 주석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수하이거나 대만조사위원회의 위원들, 또 대만간부훈련반 출신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부류도 중첩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또한 국민당 내

29) 秦孝儀, 張瑞成, 『光復臺灣之籌劃與受降接受』, 150쪽.

30) 陳鳴鐘主編, 『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上), 265쪽.

의 과별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陳儀가 政學系에 속하였으므로 이들 부류의 상당수가 정확하게 소속이기도 하였다. 우선 복건성 재임시절의 수하 중 대표적인 인물로 대만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인물로는 沈仲九, 周一鄂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만 행정 장관공서에서도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沈仲九는 陳儀의 종제로, 일찍이 일본과 독일에서 유학하였는데, 陳儀가 복건성에 재임할 때 그의 비서이자 고문으로 활동했고, 또한 복건성의 「縣政人員訓練所」를 주관하였다. 대만에 온 후에는 장관공서에서 인사와 정책설계부문에 관여를 하였기 때문에 대만 각 縣의 科長, 科員, 區長, 區員, 衛生院長, 圖書館長등 각 방면의 인물들이 대부분 沈仲九의 인맥이었고 이들 장관공서에서 중요한 계파를 이루었다.³¹⁾ 陳儀가 복건성 재임시절 省委員會의 위원이자 省식량관리국장을 지낸 周一鄂은 대만조사위원회 위원, 중앙훈련단 대만간부훈련반부주임을 지냈고, 전후 대만으로 와서는 장관공서에서 민정처장, 토지위원회상무위원, 日産 처리위원회위원, 日僑관리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밖에도 徐學禹, 李擇一, 嚴家淦, 夏濤聲, 范壽康, 柯遠芬등은 陳儀가 복건성 재임 시절부터 함께 한 사람들로 대만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장관공서의 각 부처와 위원회, 각 실에서 활동한 陳儀의 수하들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이 중 徐學禹는 진의의 광복회 옛 친구인 徐錫麟의 조카로 일찍이 독일에서 유학하였다. 陳儀가 유럽에 시찰갔을 때 서로 알게 되었는데, 陳儀가 복건 재임 시의 건설청장과 성정부 고문 겸 복건성 무역, 공광, 운수공사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장관공서 내에서 沈仲九의 인맥과 대립하는 한 세력을 이루었다.³³⁾ 李擇一은 일본 유학시절에 陳儀와 알게 된 사이로 복건성 陳儀의 휘하에서 省政府 顧問을 지냈으며, 그는 일본통으로 대외관계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대만에서도 장관공서의 고문으로 그에 대한 진의에 신뢰가 남달랐기 때문에 李擇一이 추천하는 많은 인물들이 성정부와 그 부속기관에서 중임을 맡았다.³⁴⁾ 이를 기반으로 李擇一도 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31) 錢履周, 「陳儀主閩事略」, 李敖編著, 『二二八研究三集』(臺北: 李敖出版社, 1989), 42쪽.

32) 錢履周, 「陳儀主閩事略」, 42쪽.

33) 위의 글, 42-43쪽.

비록 陳儀정부 내에는 陳儀의 사람으로 채워졌고,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계파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그룹들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진의의 사람으로 陳儀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대만의 시스템은 진의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치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양상은 그러한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진의가 집권한 후 대만에는 혼란상황이 나타났고 오히려 최근 적지 않은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전후 대만은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 국민정부가 대만에 와서 접수하기 전까지 총독부의 관할 하에서 더 안정적인 사회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하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것을 제외하고 물가는 총독부의 물가 안정화조치에 따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 하락하면서 민생은 안정적이었고 사회 질서도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총독부가 관할하던 시기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³⁴⁾ 반면 10월 25일 국민정부가 대만을 접수하고 대만 행정장관공서가 직접 대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대만 물가는 폭등하기 시작하여 경제는 악화되었으며, 더불어 사회 불안마저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陳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완벽한 통치권한을 부여받은 陳儀가 완전하게 통일된 통치 권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필자는 장관공서의 진의의 사람들은 대체로 진의의 통제 하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외에 陳儀가 부여받은 독점적 권한 범위로 제어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34) 錢履周, 앞의 글, 42쪽.

35)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第13期(2007年 9月), 66쪽.

Ⅲ.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과 대만본토의 계파들

본문에서는 陳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권력으로 대륙에서 온 세력과 대만 본토출신 세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

우선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은 국민당 내 오래된 계파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들로 당시 대만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진의 정부와 갈등하였다. CC파, 삼민주의 청년단, 軍統, 孔宋집단이 있다. 순서대로 그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C파

CC파는 중국어의 中央俱樂部의 영문번역인 Central Club를 줄인 것이기도 하지만, CC파의 리더인 陳立夫, 陳果夫형제의 성인 陳(Chen)의 영문 첫 글자의 중복사용으로 두 陳(Chen)씨 형제를 지칭하기도 한다. 陳씨형제는 장개석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의형제 陳其美的 조카들로 陳其美의 사후 장개석은 그들에게 당조직공작의 중임을 맡겼고, 이들은 장개석의 보살핌 속에 국민당내의 세력기반을 다져나갔다. 1927년 장개석이 1차로 하야했을 때, 중요한 당무는 대부분 陳果夫가 담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직된 것이 중앙구락부였다.

1926년 장개석이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부 부장시절에 조사과를 설립하여 동기당원의 상황을 조사하는 임무를 주었는데 당시 조사과는 정보기구는 아니었다. 1928년 장개석이 하야한 후 진과부가 건의하여 조사과를 黨務에 관한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하면서 미국에서 돌아온 그의 동생 陳立夫를 중앙조직부 조사과장으로 임명했다. 이 때부터 조사과는 국민당 내에서 정보를 전담하는 최초의 기구가 되었다. 중앙조직부 조사과는 1932년 9월에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으로 개편되는데, 이는 장개석의 명령으로 戴笠이 주도하는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과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 출현한 군사위원회의 조사통계국은 陳立夫가 국장되었고, 그 아래는 3개 처로 구성하였다. 제1처 처

장은 徐恩曾으로 각 당파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였고, 제2차 처장은 戴笠으로 軍警조사를 담당하였으며, 제3차 처장은 丁默邨으로 우편전신방면의 조사를 주관하였다.³⁶⁾ 장개석이 통합을 추진한 목적은 정보 조직의 일원화에 있었으나, 陳立夫와 戴笠이 각각 독자적으로 각자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국장으로서 陳立夫가 戴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조사통계국의 3개 처는 분리하게 되었다. 제1처는 국민당 중앙당부로 이관하여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사 통계국을 설립하였고, 제2처는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으로 격상하여 군사위원회 侍從室 주임인 賀耀組가 국장을 겸임하고 戴笠은 부국장이 되었다. 제3처는 군사위원회 특검처가 되어 丁默邨가 담당처장이 되었다.³⁷⁾

이렇게 분리되어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조사통계국을 줄여 ‘中統’이라고 부른다. 중통은 일종의 특무기관으로, 黨務, 정치, 경제부문으로 그 활동영역을 제한하였다. 중통은 역시 陳씨형제를 중심으로 한 CC파가 장악하였다. CC파의 세력 확대는 특무부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938년 陳立夫가 교육부장이 되면서 교육계를 CC파가 장악해 나갔고, 중앙농민은행과 교통은행 등을 장악하면서 경제계에 대한 영향도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陳씨형제의 당내의 세력이 날로 성장해 감에 따라 「蔣家天下, 陳家黨(장씨집안의 천하, 진씨집안의 국민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³⁸⁾

2) 軍統

군통은 국민당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을 줄인 말이다. 1927년 장개석이 해야했을 때, 장개석은 황포군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황포 졸업생을 규합하여 戴笠으로 하여금 비밀특무소 조인 ‘調查通訊小組’를 조직하게 하였다.³⁹⁾ 이를 기반으로 1932년 장개

36) 蕭李居, 「戴笠與特務情報工作組織的開展」, 『國史館館刊』 第33期(2012年 6月 30日), 5-6쪽.

37) 위의 글, 6쪽.

38) 徐恩曾 等著, 『細說中統軍統』(臺北: 傳記文學社, 1992), 3-5쪽.

39) 唐縱手稿, 姚孔行選註, 「唐縱失落在大陸的日記—從結識戴笠到任職侍從室」, 『傳記文學』 60(4, 5: 1992), 60쪽.

석을 따르는 황포생도들이 비밀특무조직인 ‘三民主義力行社’를 만들었는데,⁴⁰⁾ 역행사 내의 특무처는 戴笠이 주도하는 곳이었고, 이것이 군통의 전신이었다.⁴¹⁾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조직부 조사과와 통합을 하여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의 제2처가 되었다가 1938년 분리되어 제1처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사통계국이 되면서 제2처는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이 되었고 이를 줄여서 軍統으로 불렸다.

앞서 언급한 군사위원회 특검처로 분리되었던 제3처는 그 수장인 丁默邨이 왕정위 정권에 의탁하면서 특검처의 업무정탈을 두고 중통과 군통이 대립을 벌이다가 결국은 군통이 그 업무를 맡게 되었다.⁴²⁾ 그리하여 군통의 업무는 원래 맡았던 군경과 관련된 특무활동 외에 공공철로와 수륙운송, 항공우편, 국가동원에 관련된 물자조사관리, 군수산업경비와 관련 업무를 맡았다.

3) 삼민주의 청년단

삼민주의청년단은 陳誠이 리더가 되어 만든 황포군관학교 교우회세력이 그 기반이다. 장개석은 황포군관학교의 교장으로 군사생도와 관계도 매우 밀접하였지만, 군사총교관이면서 장개석이 일본 진무학당시절의 동기인 何應欽과 경쟁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황포군사계열에서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陳誠을 통해 황포 세력을 조직화하여 지지 세력을 확보 하려 했다.⁴³⁾ 1938년 4월 국민당 임시 전국대표대회에서 삼민주의청년단의 설립안이 통과되었다. 장개석은 “復興社”와 “CC계”를 파견하여 武漢 등의 지역에서 삼민주의 청년단을 설립하여 많은 공직인사, 군경, 정계인사의 입단을 독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흥사를 완전히 삼민주의 청년단의 핵심역량으로 병합하였다. 그해 7월 9일, 삼민주의 청년단은 武昌에서 정식으로 성립대회를 개최하였고, 장개석이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陳誠, 陳立夫를 포함한 31인으로 중앙간사회를 조직하였으며, 陳誠은 서기장이 되었다.

40) 周美華編, 『事略稿本』 第13冊 (臺北縣 新店市: 國史館, 2004), 311쪽.

41) 蕭李居, 「戴笠與特務情報工作組織的開展」, 5쪽.

42) 徐恩會 等著, 『細說中統軍統』, 14-16쪽.

43)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臺論」, 243쪽.

4) 孔宋집단

孔宋집단이란 孔祥熙와 宋子文의 세력을 지칭한다. 宋子文은 孔祥熙의 부인인 宋霽齡의 동생으로 孔宋 두 집안 모두 민국시기 최고의 재벌가문이었다. 宋子文의 여동생인 宋美齡이 장개석과 결혼하면서 孔宋 두 집안은 政財界에서 최고의 지위와 이익을 누렸다. 두 사람 모두 재정부장을 역임했고, 宋子文은 외교부장과 행정원장까지 지냈으며, 그 외에도 두 사람은 각각 정부 은행인 중앙은행과 중국은행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산업분야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거의 독점적 이익을 취하였다.⁴⁴⁾

종전 후 행정원장이 된 宋子文은 資源위원회를 행정원에 예속시켰다. 원래 자원위원회는 1932년 남경에서 성립된 이후 국민정부 참모본부, 군사위원회, 경제부를 거치게 되는데 宋子文이 행정원장이 되면서 행정원에 예속된 것이다. 처음 설립될 당시 자원위원회는 직원 30여 명 규모의 한 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전후에는 석유, 금속철강, 광산, 기계 등 각 방면 거의 일천 개의 중대형 기업을 관할하였고, 이들 기업의 직원을 합산하면 30만 명에 달했다.⁴⁵⁾ 자원위원회는 전후 초기 대만에서 일본의 적산을 처리하면서 전국의 주요 산업을 장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陳儀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공상회와 진의는 일찍이 복건성 재임시절 존재했던 갈등이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전후 대만의 적산처리 과정에서는 송자문의 지휘아래 활동하는 자원위원회와 충돌이 일어났다. 중화민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 정부의 재정경제부문은 공송집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후 대만에서도 공송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진의는 재정부문에서 스스로 무능함을 느끼게 되었다.

2. 대만본토의 계파들

1) 半山派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는 기간에 일부 대만인은 일본통치에 불만을 갖

44) 許師慎 編, 『國民政府建制職名錄』(臺北縣 新店市: 國史館, 1984), 403쪽.

45) 薛毅, 『資源委員會接管臺灣工礦企業略論』, 『史學月刊』, 2004年 第10期, 71쪽.

고 대륙으로 이주하여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였다. 특히 항전기간에는 대륙에 와서 종군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의가 대만집수를 준비하면서 국민정부 각 부서의 인원을 차출하여 대만조사위원회와 대만 간부훈련반을 조직할 때 이들 대만에서 온 사람들 중 일부도 여기에 합류시켰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장관공서와 대만 인민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고 각종 정책의 실시에 도움을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반산인사들은 이러한 대륙에서의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후에는 대만행정장관공서에서 요직을 맡았다.⁴⁶⁾ 이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臺灣憲政協進會”이나 “臺灣文化協進會” 등의 단체를 조직했는데, 때로는 함께 또는 따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였다.⁴⁷⁾ 이들은 모두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던 시기에 대륙으로 가서 반쯤은 대륙화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대만사람들은 이들을 半山派라고 불렀다. 대만사람들은 대륙을 唐山이라고도 지칭했는데 반쯤 대륙화하였다는 반산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산파에는 臺灣省 參議會 議長 黃朝琴, 臺北市長 游瀾堅, 新竹縣長 劉啓光, 臺北新生報社長 李萬居, 삼민주의 청년단 臺灣區團長 李友邦등이 있었다.⁴⁸⁾

이들의 일부는 대만조사위원회나 대만행정장관공서를 통하여 陳儀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들이 陳儀의 적극적인 지지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륙에 있을 때부터 제각기 국민당의 각 계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游瀾堅은 일찍이 부친이 재정부에 근무하면서 宋子文의 부하로 있었고 유미건도 그 배경을 통해 재정부 稅警總團 軍需처장이 되었기에 공송집단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⁹⁾ 李萬居는 1937년부터 군사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에 들어가 일본에 대한 군사정치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때 군통과 관계하게 되었다.⁵⁰⁾ 劉啓光도 군사위원회 총정치부에서 上校科員과 대만공작단 주

46)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245쪽.

47) 葉石濤, 《台灣文學史綱》(臺北: 春暉出版社, 2003), 81쪽.

48)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246쪽.

49) 張炎憲·李筱峰·張永明(編撰), 『臺灣近代名人誌(一)』(臺北: 自立晚報社, 1987), 152쪽.

50) 張炎憲·李筱峰·張永明(編撰), 『臺灣近代名人誌(一)』, 164쪽.

임 등의 직위를 거치면서 군통과 연을 맺었다.⁵¹⁾ 黃朝琴은 1928년 1월부터 국민정부 외교부에 들어가서 이후로 줄곧 외교방면의 직무를 맡았고 또한 그는 정확하게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정학계소속이 되었다.⁵²⁾ 반산파의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정학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黃朝琴에 대한 陳儀의 지치는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1945년 8월에 대북시장이 되었던 黃朝琴은 얼마 후 시장직을 사임하고 省 參議院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되었고, 의회 의장자리를 두고 林獻堂과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陳儀가 林獻堂을 압박하여 물러나게 함으로써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⁵³⁾

이들 반산파들에는 자신들의 직위와 관계들을 이용해서 나름의 계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 대만본토인민을 위하여 혹은 진의의 행정장관공서를 위하여 혹은 대륙에서 온 국민당세력파도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다.

2) 臺中派

臺中派은 林獻堂을 중심으로 대만본토의 지주 신사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파로, 일본 식민당국자가 물러난 대만에 새롭게 성립한 국민당정부와 협력하며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의 정부가 대만을 접수할 초기에는 진의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인 林獻堂는 일본 통치 시기부터 대만 도민의 민족의식 고양을 위한 계몽운동을 펼쳐왔고,⁵⁴⁾ 10여 차례에 걸쳐 대만의회실 치청원운동을 펼쳤다.⁵⁵⁾ 중일전쟁 발발이후 국민정부의 항전에 줄곧 관심을 쏟아왔던 林獻堂은 광복과 더불어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하게 된 것을 환영했었다.⁵⁶⁾ 그러나 대만성 참의회 의원에 참가하여 의장 경선

51) 張炎憲·李筱峰·張永明(編撰), 『臺灣近代名人誌(一)』, 222쪽.

52) 鄭梓, 『本土菁英與議會政治--臺灣省參議會史研究(1946-1951)』(華世, 1985), 24쪽.

53) 鄭梓, 『本土菁英與議會政治--臺灣省參議會史研究(1946-1951)』, 24쪽.

54) 李付寶, 「談日據時期林獻堂, 蔣渭水的早期活動」, 『東京文學』, 2011년 第11期, 367쪽.

55) 徐魯航, 「試論日本統治時期的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 『中共福建省委黨校學報』, 2001년 第2期, 69-71쪽.

56) 陳思, 「林獻堂眼中的國民黨與臺灣」, 『臺灣研究集刊』(廈門), 2014년 第1期, 50

에 참여하려고 하였을 때 陳儀의 압박에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⁵⁷⁾

뿐만 아니라 1946년 2월 장관공서는 각 항목의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일본통치시대 皇民奉公會에서 중요한 업무경험자란 사실이 확인된 자”, “간첩혐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 자”는 등기하고 공권력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반포하여 대만출신자의 정계진출을 제한하였다. 즉 이 규정으로 일본강점기 황민봉공회 직무를 맡은 적이 있는 대만출신 인사들은 전후 공직에 참선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임헌당, 林茂生, 陳炳 등 많은 대만 본토 지주 신사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이들은 “臺灣政治研究會”를 조직하여 정권참여를 요구하였다.⁵⁸⁾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陳儀와 반목할 여지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3) 阿海派

阿海派는 蔣渭川과 許丙 두 사람이 결합한 계파로, 이들은 대만에서 상당한 민중기반과 정치활동력을 가지고 있던 대만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대만본토세력들은 광복초기에 陳儀정부와 순조롭게 결합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陳儀정부내의 대만출신인 반산파들의 배척을 받았다. 蔣渭川과 許丙도 각기 반산파의 공격으로 투옥된 적이 있기 때문에 출옥 후 반산파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결합하였던 것이지만, 각자 독자적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⁵⁹⁾ 또한 陳儀정부의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륙에서 온 국민당계파들과 연계할 수 있었다. 蔣渭川은 국민당 대만당부의 협력 하에 “대만성정치건설협회”를 설립하였고, 대만성당부는 蔣渭川을 통하여 많은 수의 기층 본토세력을 “정치건설협회”와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 때 阿海派와 결합한 국민당 세력이란 CC파와 삼민주의 청년단으로 이들은 阿海派를 이용하여 대만 각지에서 당 조직을 발전시켰는데, 당시 대만인의 눈에 보기에 “진보인사와 열혈청년은 삼청단을 따르고...보수인사와 유력한 士紳은 국민당에 들어갔는데, 동일한 주의 하의 양대 파벌을 형성하는 기형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회

쪽.

57)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251쪽.

58) 陳思, 「林獻堂眼中的國民黨與臺灣」, 52쪽.

59)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251쪽.

고하였다.⁶⁰⁾ 이처럼 대만인들의 눈에는 진보와 보수인사가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결국 그들이 소속된 단체가 국민당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었다.

IV. 진의와 각 권력집단들의 갈등

1. 孔宋집단과의 갈등

陳儀의 장관공서와, 정확계를 제외한 대륙에서 온 네 개의 집단은 분명 소속계파의 당무, 산업금융, 군권 이익추구를 위한 갈등을 연출한 권력주체들이다. 우선 공송집단과 진의의 장관공서 사이에 가시화된 갈등 원인에는 일본적산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다. 전후 대만의 각 기관의 접수와 통치에 대해서 국민정부는 행정장관공서에 전권을 주었다.⁶¹⁾ 그러나 행정원 산하의 資源委員會는 특별히 따로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접수하려고 하였고, 陳儀는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쌍방의 거듭된 협의를 거쳐 대만 기업을 3종류로 분류하여, 國營, 國省合營, 省營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國營과 國省合營은 자원위원회가 경영업무를 책임지기로 하였는데,⁶²⁾ 국영과 국성합영으로 결정된 기업들은 모두 당시 대만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한 기업이었다. 예를 들면 電力公司, 水泥公司, 紙業公司, 石油公司⁶³⁾ 등으로 주요한 관리책임자는 모든 자원위원회에서 파견한 고위관료들이었다.⁶⁴⁾ 이로써 대만 행정장관공서는 주요 기업을 결국 국영 또는 국성합영으로 내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전후 적

60) 『吳新榮回憶錄』, 191쪽; 陳翠蓮, 『派系鬭爭與權謀政治—二二八悲劇的另一面相』, (臺北: 時報文化出版企業有限公司, 1995), 243쪽에서 재인용.

61) 鄭梓, 『戰後臺灣的接收與重建』(臺北: 新化圖書有限公司, 1994), 136쪽.

62) 錢昌照, 『錢昌照回憶錄』(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8), 72쪽.

63) 『資源委員會在臺各事業聯席會議記錄-第十七次聯席會議紀錄』(1947年 1月 24日, 臺灣國史館所藏)

64) 薛毅, 『資源委員會接管臺灣工礦企業略論』, 73쪽.

산처리와 기업을 접수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자원위원회에 빼앗겼다. 자원위원회의 주요 인재들은 대부분 중국 내의 고등 교육기관 출신자들이었는데, 항전이 발발한 후 위원회 내의 인재를 다시 선발하여 순차적으로 미국 등지로 파견하여 교육하고 시찰하게 하는 등의 재교육을 거쳤던 사람들이었다. 종전 후 宋子文이 행정원장이 되면서 자원위원회를 행정원 산하에 두고 錢昌照를 위원장으로 삼아 적산의 접수, 공업배치의 조정, 중공업건설계획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국영기업과 국성합영기업의 總經理은 자원위원회에서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각 주요기업에도 공송집단의 사람들로 채워넣었다.⁶⁵⁾

자원위원회는 중공업 분야 뿐 아니라 재정과 금융, 지방세 징세 부문에까지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일찍이 대만 조사위원회가 간부훈련반을 운영할 때에 국내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 40명을 모집하여 「臺灣銀行人員調訓班」을 개설하고 대만 금융방면의 접수관리 간부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와 금융방면의 인사에 있어서 陳儀는 孔宋 집단에 밀려나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었다.⁶⁶⁾ 이로써 대만의 적산처리와 중요 산업분야는 자원위원회로 대표되는 孔宋집단의 영향에 들어갔고, 대만을 대륙 각 쑤파는 다른 체제에서 자주성을 갖고 운영하고자 했던 陳儀의 이상은 실현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 진의 스스로 매우 한탄하였다.⁶⁷⁾ 결국 산업과 금융 방면에서 진의가 간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게 된 것이다.

2. 삼민주의 청년단과의 갈등

대륙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진의와 陳誠이 영도하는 삼민주의 청년단과는 비록 표면적으로 크게 충돌한 적은 없었다. 두 사람은 모두 군인출신으로, 진성은 장개석의 嫡系 황포군 세력이었고, 진의는 일찍이 군벌 孫傳芳에게 의지하여 후에 다시 장개석의 권력 진영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다지 융합되기 어려운 관계였던 것 같다.⁶⁸⁾

65) 馮世勇, 「錢昌照與資源委員會」, 『炎黃春秋』(2007年第11期), 39-40쪽.

66) 文史資料研究會 編, 『陳儀生平及被害內幕』, 108쪽.

67) 위의 책, 107쪽.

진의와 삼민주의 청년단의 갈등은 李友邦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

李友邦은 원래 대만 출신으로 정치적 색채가 변화무쌍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4년 대만을 떠나 중국 廣州로 가서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대만혁명청년단에 가입하였고, 1929년에는 군대에서 좌익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국민당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1937년 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대만의용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참가하였다. 1940년 초, 李友邦이 대만의용대의 정식 비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重慶에 갔을 때, 삼민주의청년단 중앙간사회의 간사장인 康澤便은 대만의용대를 비준하는 조건으로 대만의용대 내에 삼민주의청년단을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2년 李友邦은 그 책임자가 되어 대만의용대에 삼민주의 청년단 설립을 준비하였고, 1943년 1월에 삼민주의청년단, 대만의용대 分團을 설립하였다.⁶⁹⁾

전후 삼민주의청년단의 영수인 陳誠은 李友邦, 張士德에게 일본강점기 대만의 반일 지식 분자를 흡수하여 대만에서 삼민주의 청년단을 조직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李友邦은 1945년 12월 대만 삼민주의 청년단의 책임자의 신분으로 대만의용대 전우들과 함께 대만으로 갔다.⁷⁰⁾ 그러나 진의는 각 지역 접수공작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대만의용대 해산 명령을 내렸고 李友邦은 이로 인해 매우 비통해 하였다.⁷¹⁾ 대만의용대의 해산 이후 李友邦은 삼민주의 청년단 臺灣區團을 중심으로 다시 체계를 정비하면서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대만문화협회의 동지들을 규합하였고, 또한 대만 내의 반일 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던 좌익 활동가들을 흡수하였는데 예를 들면, 王添燈, 陳復志, 陳逸松, 王萬德 등이 각 지역의 삼민주의 청년단 설립공작에 가담하였다. 이우방이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역량을 강화하려자 진의는 이들이 좌익색채가 농후하다고 하여 삼민주의 청년단의 활동 경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고 배척함으로써 陳儀와 대만 삼민주의 청년단의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⁷²⁾ 그러나 진

68)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254쪽.

69) 陳在正, 「李友邦領導的臺灣“三青團”與臺灣光復」, 『臺灣研究集刊』(廈門)(2010年第1期), 1-2쪽.

70) 위의 글, 4쪽.

71) 鐘逸人, 『辛酸六十年』(臺北:前衛出版社, 1995), 364쪽.

의가 견제하였던 것은 사실상 삼민주의 청년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 단체를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우방이라고 하는 대만출신 세력으로 보는 것을 옳을 것이다.

3. CC파와의 갈등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CC파와 진의가 소속된 신정학계는 1920년대 후반기 장개석의 휘하에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대립의 관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의와 CC파와는 일찍이 진의가 복건성에 재임시절에도 충돌의 경험이 있었다. 당시 CC파가 복건성 경찰부문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진의와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장개석은 CC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복건성 경찰부문을 CC파가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진의와 CC파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⁷³⁾ 진의와 CC파의 대립은 대만에서도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진의와 陳立夫와의 갈등이었는데, 그 첫 번째는 장관공서의 人選에 대하여 陳立夫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는 정학계가 행정장관공서를 독점한다고 보고 이에 우려를 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관공서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정학계 출신으로 채워지자 陳立夫는 장개석에게 李翼中을 국민당 대만지부의 총책임자로 강력히 추천하였다.⁷⁴⁾ 그는 李翼中을 파견하여 앞에서는 당무를 통하여 진의의 통치를 지지하게 하였지만 뒤에서는 그를 감시하는 이중적인 활동을 하였다. 李翼中은 CC파의 모임에서 매번 진의를 비난하곤 하였고, 阿海派의 張渭川을 이용하여 진의를 우회적으로 공격하게 하기도 하였다.⁷⁵⁾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만출신의 阿海派는 진의의 장관공서가 이용했던 반산파와 대립하여 투옥되었던 적이 있는데 출옥 후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의 개파 중 CC파와 삼민주의 청년단과 결합하게 되었으며, 역으로 CC파는 진의를 공격할 때 阿海派의 장위천을 이용

72) 鍾逸人, 『辛酸六十年』 410쪽.

73) 錢履周, 「陳儀主閩事略」, 54-55쪽.

74) 賴澤涵, 「悲劇性的開端: 臺灣二二八事變」(臺北: 時報文化, 1993), 113쪽.

75) 陳三井, 許雪姬, 「林衡道先生訪問記錄」, 『口述歷史』(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1), 225쪽.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CC파와 陳儀와의 갈등은 매체와 문화산업분야에서도 나타났었다. 1946년 국민정부는 각 지역 당부 스스로가 운영경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국민당 臺灣省黨部는 이를 구실로 장관공서에 영화관련 산업의 권리를 省黨部의 운영경비 마련을 위해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진의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다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대만성당부의 요구를 허락하자, 臺北國際映畫院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성당부에 넘겨주었다. 이 때부터 장관공서는 대만의 영화산업에 대해서 간여할 수 없었다.⁷⁶⁾ 이 또한 진의정부가 CC파와의 경쟁에서 패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진의는 국민당 소속이었으며 대만 내의 최고 권력의 위치에 있었지만, 당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4. 軍統과의 갈등

전술한 바와 같이 진의가 복건성에 재임하던 시절에, CC파의 중통이 복건성의 경찰계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진의는 군통을 끌어들었다.⁷⁷⁾ 그러나 군통에서 파견한 張超는 복건성의 건달들을 모아 복건성 경찰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빠르게 확대하였는데, 오히려 CC파보다도 더 거침없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진의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張超를 살해함으로써 군통의 戴立과도 대립하게 되었다.⁷⁸⁾

진의는 대만행정장관 뿐 아니라 대만성 경비총사령관을 겸직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대만의 행정권과 군권을 모두 장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만의 군 지도층에는 군통세력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었다. 특히 군통의 세력은 대만의 경비 총부와 헌병 제4단에 집중되었는데, 대만 경비총사령부 참모장인 柯遠芬, 헌병 제4단 단장 張慕陶, 대만기차역 역장 林頂立, 대만보안사령부조사처장 陳達元 뿐만 아니라 진의가 복건성 재

76) 陳景峰, 「戰後陳儀與CC派在臺灣電影產業上的爭奪」, 『臺灣風物』 第51卷 4期, 100쪽.

77) 錢履周, 「陳儀主閩事略」, 55쪽.

78) 余鍾民, 「陳儀槍殺張超的前前後後」, 李敖編, 『二二八研究三集』, 70쪽.

임시절에 원수처럼 보았던 당시 복건성 경비국장 李進德도 후방근무 총사령부 대만 供應局局長으로 임명되어 있었다.⁷⁹⁾ 이러한 人選 결과들은 진의가 군부 내에서도 권한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의는 명목상 대만의 행정권 뿐 아니라 경비총사령관으로서 군권도 장악하였지만, 실상은 군대 방면에서도 통치력을 발휘하기에 커다란 장애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5. 대만 본토계파와의 갈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복 후 대만 출신으로 세력을 이루기 시작한 그룹들로 半山派, 臺中派, 阿海派가 있다. 陳明通은 陳儀정부가 半山派는 이용하고 臺中派는 배척하고, 阿海派는 공격하였다고 주장한다.⁸⁰⁾ 그러나 그의 표현에는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다. 청일전쟁이후 50년간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온 대만과 중국대륙의 정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한 국민정부는 대만출신자들을 찾아 대만의 접수와 행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대만 기층사회의 교량을 삼고자 하였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대만출신으로 대륙에서 활동했던 반산파였다. 陳儀도 이러한 관점에서 黃朝琴과 游彌堅등 반산파를 지지했던 것이다. 대만 각 지역의 행정기관 수장으로 삼았고, 놓고 臺中派의 林獻堂과 대만성 참의회 의장직을 두고 경쟁 중이던 黃朝琴을 위해 林獻堂을 압박했던 것도 그러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반산파가 진의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반산파 인사들 중에는 대륙에서부터 국민당 각 계파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游彌堅은 공송집단과, 李萬居과 劉啓光은 군통과, 黃朝琴은 정학계, 李友邦은 삼민주의 청년단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이 각 계파와 연계되어 있었고, 또한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파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진의에 충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산파와 진의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79) 陳翠蓮, 『派系鬭爭與權謀政治—二二八悲劇的另一面相』, 232쪽.

80)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254쪽.

그러나 반산파 중 삼민주의 청년단의 李友邦에 대해서 진의는 대만의용대를 해산하고 삼민주의청년단을 견제하는 조치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만을 접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반산파의 도움이 진의에게는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의는 그들을 이용했지만,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지 국민당의 기타 계파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진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게다가 이우방에 대해서는 공격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반산파를 진의의 지지 세력이라거나 진의에게 우호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결국 진의가 반산파를 이용했다고 하기 보다는 반산파가 진의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좋을 것이다.

臺中派에 대해서 진의는 배척하는 입장을 취했다. 앞에서 본 臺中派의 대표적인 인물인 林獻堂은 광복초기 국민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하였기에 공개적인 강연에서 국민정부를 찬양하면서 국민당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열렬한 환영의 태도를 보였다.⁸¹⁾ 그러나 陳儀정부의 무능과 그들이 대만본토인에 대해 취한 태도는 林獻堂으로 하여금 국민당에게 실망하고 돌아서게 했다. 진의가 참의회 의장 경선에 참여하려던 林獻堂을 압박하여 자진해서 물러나게 하고 黃朝琴이 의장이 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林獻堂을 비롯한 대만 紳士층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려고 한 것이었다. 일본 식민시기의 침자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진의정부는 1946년 2월 21일, 辜振甫, 陳炳, 許丙, 林熊祥 등 각지의 紳士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체포하였고, 이들에게 대만독립을 획책한 간첩이라는 죄명을 붙였다. 林獻堂은 이를 두고 진의 정부가 신사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⁸²⁾ 더 나아가 진의 정부는 각 항목의 선거를 치르기에 앞서 식민통치시기 식민당국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해 참신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 조치는 林獻堂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그는 비록 회의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81) 陳思, 「林獻堂眼中的國民黨與臺灣」, 『臺灣研究集刊』(廈門), 2014年 第1期, 51쪽.

82) 許雪姬, 『灌園先生日記』(十八), (臺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2004), 68쪽.

1945년 4월에 일본 貴族院의 의원이었고, 광복 후에 아직 국민정부가 대만에 입도하기 전에 林獻堂은 총독부와 상의하여 “治安維持會”를 조직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그는 일본의 어용신사라는 의심을 받았다.⁸³⁾ 이러한 일들은 모두 臺中派와 대만본토 신사층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국민정부의 대만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했던 대만 출신 인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참선제한과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陳儀가 臺中派에게 취한 태도가 배척보다는 좀 더 공격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阿海派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격하였다. 阿海派의 許丙은 林獻堂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 통치 시기 貴族院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御用紳商라 불렸고, 이 뿐 아니라 許丙이 일본이 투항할 무렵 일본군과 草山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정부의 접수를 거부하는 무장 항의를 논했다는 죄목으로 투옥하였다.⁸⁴⁾ 阿海派의 張渭川은 CC파의 지원을 얻으면서 진의의 시정에 대한 불만을 신문과 강연회를 통해 표출하고 비난하면서 진의에 의해 기소된 적이 있는데, 후에 회개서를 쓰고 사면되었다. 2·28 사건이 발발했을 때, 진의는 蔣渭川을 통해 삼민주의청년단이 통제하는 “2·28 사건처리위원회”를 분열시키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장위천을 음모반란자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체포하기도 하였다.⁸⁵⁾

반산파, 대중파, 아해파로 분류되는 대만 출신자들은 진의를 이용하거나 진의와 적대적인 계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진의를 이용하거나 대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결국 독자적으로 서기 어려웠던 반산파는 국민당 중앙계파와 진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이용하며 자신들의 지위 확보에 힘을 썼고, 대중파는 국민당 중앙계파와의 연계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진의와 대립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아해파는 처음부터 진의와 대립하는 가운데 CC파에 이용되었고, 또한 CC파를 이용하여 진의와 대립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대만 출신 세력은 독자적인 힘으로 진의와 대립할 만한 역량이 없었고, 오히려 국민당 중앙 계파들과의 연계 속에 진의와의 갈

83) 許雪姬, 앞의 책, 66쪽.

84) 陳明通, 「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255쪽.

85) 위의 글, 255-256쪽.

등 상황을 대처하였으며, 진의 또한 이들의 존재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한 면에서 대만 본토세력은 진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비중있는 세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전후 대만의 혼란정국의 원인으로, 전후 대만에 새로이 등장한 권력주체들의 갈등을 주목하였다. 전후 국민정부가 파견한 새로운 대만의 통치주체인 진의가 항복의식을 거행하는 10월 말까지 대만의 통치는 여전히 대만 총독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10월 말까지 2개월의 기간 동안 대만 경제, 민생, 치안 방면에서 아주 안정되었으나 진의 정부가 접수공작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혼란의 양상은 날로 가중되어 대만민중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⁸⁶⁾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정부는 카이로 회담에서 대만의 중국 귀속이 결정된 이후부터 계속 대만 점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비록 문서에 근거한 대만 조사와 분석이 대만 실질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진의의 대만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만 점수 준비는 대만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륙의 일본 점령지 수복보다는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의의 점수 공작과 통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필자는 그 원인을 표면적으로는 진의가 軍政대권을 장악하여 통치체제를 일원화한 듯 보였으나 실상은 진의가 통제할 수 없는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실 진의는 표면상으로는 행정과 군사방면의 대권을 장악한 대만 최고 권력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군사, 경제 각 부문에서 대륙에서 온 권력들과 겨루어 갈등을 초래하였다. 즉 전후초기 대만에서 CC파는 국민당 당무, 군통은 군사와 정보, 삼민주의 청년단은 청년 지식분자를 흡수, 공송집단은 경제와 금융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86)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64-79쪽.

이들 각 파는 원래 대륙시절에서부터 정확계 혹은 진의 본인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대만 접수과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각 파의 이익쟁취와 세력 확대에 힘을 쓰다 보니 진의는, 여전히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통일된 계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각 파별은 진의와 대립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만 본토의 세력을 끌어 들여 이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진의를 공격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당 내부계파들의 권력투쟁과 대만본토 세력의 양분된 갈등양상처럼 보이나 실상은 진의와 국민당 각 계파의 갈등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陳明通이 주장한 진의와 대륙에서 온 권력, 대만출신세력의 삼각구도에 의한 대립이라고 하기 보다는 결국 진의와 대륙에서 온 권력 계파들의 이원적 갈등이 주를 이루고 그 사이에 대만출신자들은 필요에 따라 국민당 중앙의 세력에 이용되는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계파와의 계속된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 진의가 애초에 구상했던 이상적인 대만 재건의 길은 순조롭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만의 혼란은 가중되어 갔다. 애초에 장개석은 대만에 중국 대륙의 정치경제적 혼란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안정되게 정치와 경제의 건설을 이루기 위해 진의에게 軍政一體의 권력과 엄밀한 통제체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대륙정치의 영향을 차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즉 진의를 둘러싸고 계파세력들의 각축이 대륙에서 온 권력주체들 뿐 아니라 이들이 이용한 대만 본토세력에도 이식되어 대륙의 기존 계파정치의 폐단이 대만에서도 심화되어 나타났다. 그로 인해 진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결국 당시의 권력구도는 크게 공식적인 대만의 권력기구인 진의정부와 대만에서의 이익을 노리던 대륙에서 온 권력인 국민당 중앙의 여러 계파의 대립하는 양자대결 구도로 나타났고,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힘으로 진의정부에 맞서기 어려웠던 대만본토세력이 대륙에서 온 세력에 협조하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전후 초기 대만의 권력층의 갈등은 대륙에서 온 세력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대만인들은 대체로 국민당정부의 지배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신문 및 자료집

『掃蕩報』(聯合版) 1942年 11月 13日字.

『國民政府公報』, 渝字第八四六號 1945年 9월 1日字.

臺灣省行政長官公署秘書處編輯室編, 『臺灣省行政長官公署公報』 第一卷 第一期
1945年 12月.

臺灣省行政長官公署秘書處編輯室編, 『臺灣省行政各機關組織規則』 1946年 4月.

『資源委員會在臺各事業聯席會議記錄-第十七次聯席會議紀錄』 1947年 1月 24日.

許師愷 編, 『國民政府建制職名錄』, 臺北縣 新店市: 國史館, 1984.

張炎憲、李筱峰、張永明(編撰), 『臺灣近代名人誌(一)』, 臺北: 自立晚報社, 1987.

秦孝儀, 張瑞成主編, 『光復臺灣之籌劃與受降接受』,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會, 1990.

許雪姬, 『灌園先生日記』(十八), 臺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2004.

2. 논문 및 저서

裴可權, 『台共叛亂及覆亡經過紀實』, 臺北: 台灣商務印書館, 1987.

文史資料研究會 編, 『陳儀生平及被害內幕』,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87.

中國第二歷史檔案館, 『抗戰勝利前國民黨政府接受臺灣準備工作檔案史料選』, 『民國檔案』 1989年 第3期.

陳鳴鐘, 陳興唐, 『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상)』, 南京: 南京出版社, 1989.

錢履周, 『陳儀主閩事略』, 李敖編著, 『二二八研究三集』, 臺北: 李敖出版社, 1989.

詹彩鳳, 『共產份子與二二八事件』, 陳利南編의 『禁忌·原罪·悲劇: 新生代看二二八事件』, 臺北: 稻鄉出版社, 1990.

張瑞成, 『抗戰時期收復臺灣之重要言論』, 臺北: 近代中國出版社, 1990.

陳儀深, 『論台灣二二八事件的原因』, 陳琰玉主編, 『二二八事件學術研討會論文集』, 1991.

張旭成, 『二二八事件的政治背景及其影響』, 陳芳明編, 『二二八事件學術論文集』, 1991.

- 李筱峰,「二二八事件前的文化衝突」,『思與言』第29卷 第4期,1991。
- 陳三井,許雲姬,「林衡道先生訪問記錄」,『口述歷史』(2),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91。
- 陳燒清,「陳儀治台與台灣“二二八”起義」,『學海』1992年 第6期。
- 徐恩曾 等著,『細說中統軍統』,臺北:傳記文學社,1992。
- 唐縱手稿,姚孔行選註,「唐縱失落在大陸的日記--從結識戴笠到任職侍從室」,『傳記文學』第60卷,1992。
- 孫彩霞,「陳儀與臺灣(上)」,『海峽評論』74期,1997。
- 錢霞周,「我所知道的陳儀」,戴國輝,『愛憎二二八』,臺北:遠流出版社,1992。
- 許雲姬,「台灣光復初期的民變:以嘉義三二事件為例」,賴澤涵主編,『台灣光復初期歷史』,台北:中央研究院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1993。
-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臺論」,賴澤涵主編,『臺灣光復初期歷史』,臺北:中央研究院中山人文科學研究所,1993。
- 唐德剛,「政學系探源」,『傳記文學』第63卷,1993。
- 賴澤涵,「悲劇性的開端:臺灣二二八事變」,臺北:時報文化,1993。
- 鄭祥,「戰後臺灣的接收與重建」,臺北:新化圖書有限公司,1994。
- 趙英蘭,「論南京國民政府時期的新政學系」,『史學集刊』1995年 第3期。
- 陳翠蓮,「派系鬥爭與權謀政治-二二八悲劇的另一面相」,臺北:時報文化出版企業有限公司,1995。
- 鍾逸人,『辛酸六十年』,臺北:前衛出版社,1995。
- 陳志奇,『中華民國外交史料匯編』(十一),臺北:渤海堂文化事業有限公司,1996。
- 錢昌照,『錢昌照回憶錄』,北京:中國文史出版社,1998。
- 姚禮明,「1949年以前的台灣海峽兩岸關係研究」,『北京大學學報』1999年 第3期。
- 徐魯航,「試論日本統治時期的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中共福建省委黨校學報』2001年 第2期。
- 葉石濤,《台灣文學史綱》,臺北:春暉出版社,2003。
- 薛毅,「資源委員會接管臺灣工廠企業略論」,『史學月刊』,2004年 第10期。
- 周美華編,『事略稿本』第13冊,臺北縣 新店市:國史館,2004。
- 澤涵,朱德蘭,『歷史視野中的兩岸關係(1895-1945)』,臺北:海峽學術出版社,2005。
- 蘇瑤崇,「“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國史館學術集刊』第13期 2007。
- 馮世勇,「錢昌照與資源委員會」,『炎黃春秋』2007年 第11期。
- 陳在正,「李友邦領導的臺灣“三青團”與臺灣光復」,『臺灣研究集刊』(廈門)2010年

第1期.

李付寶, 「談日據時期林獻堂, 蔣渭水的早期活動」, 『東京文學』, 2011年 第11期.

蕭李居, 「戴笠與特務情報工作組織的開展」, 『國史館館刊』 第33期, 2012.

陳思, 「林獻堂眼中的國民黨與臺灣」, 『臺灣研究集刊』 (廈門), 2014年 第1期.

Abstract

The Cause of the Confusion in Taiwan at the Beginning of the Post-war: Conflict Among the Authorities

Jung, Hyung-Ah*

I noted the confusion in Taiwan at the beginning of the post-war regarded as one of the indirect causes of the 228 Incident in Taiwan, and I thought the authorities from mainland China provided the causes of the conflict. With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power structure has been reorganized into new government system of KMT. Generally speaking, conflict between new government from mainland and the settling powers in Taiwan was brought out the 228 incident. Chenyi and his Taiwan Administrative Offices formally was in a position of highest power instead of Japanese colonial rule. Most of Chenyi Government's administrators were trained as the experts for all parts of governance in Taiwan. Meanwhile, besides Chenyi and his partners, KMT's own factions also came to Taiwan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first in the party affairs, the fields of politics, the industry economy, the military. Those factions of the KMT broke a lance with Chenyi's government, furthermore they were in confrontation with Chenyi. In addition, the settling powers in Taiwan entered into a combination with the KMT's factions against Chenyi. So the three of

* Research Professor of Tamra Culture Research Institute.

them may say The authorities at that time, that is, who are the main characters of this paper.

Apparently, Chenyi was in the position of supreme power in Taiwanese administration and military, but he could do nothing under his means. The CC Clique engaged in KMT's affairs, the Military-Statistics Bureau was in control of the military and the secret intelligence service, the Youth League of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absorbed the young intellectual class, and the Kung-Soong group seized the economy and finance. They all came from mainland, but didn't collaborate with Chenyi, and they went as far as to capitalize the settling powers of Taiwan to press Chenyi. Not enough of the Taiwanese settling powers were standing against Chenyi, so they cooperated with the KMT's cliques from mainland. Eventually, the conflict among the authorities in Taiwan at the beginning of the postwar proceeded from conflict between Chenyi and the KMT's cliques, some of Taiwanese wanted to take advantages between them, but most of Taiwanese felt doubts about KMT's government ruling.

Key Words : Taiwan, Conflict of the Authorities, KMT's Cliques, the Beginning of the Post-war, Chen-yi.

교신 : 정형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탐라문화연구원
(E-mail : yinguka@naver.com)

논문투고일 2014. 08. 30.

심사완료일 2014. 10. 03.

게재확정일 2014. 10. 24.